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저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公無渡河(공무도하)
임은 그에 그 물을 건너셨네. 公②竟渡河(공경도하)
물에 끌려 돌아가시니, 墮河而死(타하이사)
㉡가신 입을 어이할꼬. 當奈公何(당내공하)

1. 고대 가요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설화(說話) 속에 삽입되어 전한다.
- ② 제의(祭儀) 형식의 집단 가무에서 싹텄다.
- ③ 현전(現傳) 고대 가요는 모두 집단 창작되었다.
- ④ 구비 전승되다가 한역(漢譯)되어 문헌에 남게 되었다.
- ⑤ 집단 서사적인 형태에서 점차 개인 서정적인 문학으로 발전하였다.

2.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적 화자가 이별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임의 죽음으로 인한 비탄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③ 시적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물(河)'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시기의 가요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去隱春皆理米	간 봄 그리매
毛冬居叱沙哭屋尸以憂音	모든 것사 우리 시름.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	아름 나토샤은
兒史年數就音墮支行齊	즈시 살쫂 디니져.
目煙迴於尸七史伊衣	눈 돌칠 스이에
逢烏支惡知作乎下是	맛보옵디 지소리.
郎也慕理尸心未行乎尸道尸	낭(郎)이여 그릴 므스

미 녀을 길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다뭇 굴허헤 잘 밤이시리.

-득오, <모죽지랑가>

3. 이 노래의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죽지랑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 ② 주술적인 의식을 통해 자신의 죄를 씻고자 한다.
- ③ 죽지랑의 죽음에 대하여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 ④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켜 극복하고자 한다.
- ⑤ 살아 생전의 죽지랑의 모습을 그리며 잊지 못하고 있다.

4. 이 노래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열치매 / 나타난 달이
흰 구름 좇아 떠 가는 것 아니야?
새파란 나리에 / 기랑(耆郎)의 모습이 있어라.
일로 나리 조약에 / 낭의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좇누아져. / 아아, 잣가지 높아
서리 모르시올 화반(花判)이여.
- 충담사, '찬기파랑가'

- ① 이 노래와 <보기>에는 모두 시적 대상이 드러나 있다.
- ② 이 노래는 8구체 향가이고, <보기>는 10구체 향가이다.
- ③ 이 노래는 화자의 정서를, <보기>는 시적 대상의 인품을 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이 노래의 '므스미'(마음)와 <보기>의 '마음'은 모두 시적 대상의 마음을 가리킨다.
- ⑤ 이 노래에서는 대상을 묘사적으로 표현한 반면, <보기>에서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이 서울히 마르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론 질삼뵈 브리시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러곰 좃니노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나)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긴히썸 아즐가 ㉣긴히썸 ㉤그츠리잇가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즘흔히를 아즐가 즘흔히를 외오곰 녀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신(信)잇든 아즐가 신잇든 그츠리잇가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다) 대동강(大洞江) 아즐가 대동강 너븐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비내여 아즐가 비내여 노훈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네가시 아즐가 네가시 럼난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널비에 아즐가 널비에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대동강 아즐가 대동강 건넌편 ㉦고즐여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비타들면 아즐가 비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5.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후렴구가 발달되어 있다.
- ② 재회(再會)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서려 있다.
- ③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를 주요 소재로 삼았다.
- ④ 고려 속요 '정석가'와 유사한 내용이 들어 있다.
- ⑤ 정시상의 한시 '송인(送人)'과 주제 및 배경이 동일하다.

6.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임과의 이별이 창작의 계기가 되었다.
- ② 시상이 진행됨에 따라 화자의 심리가 변하고 있다.
- ③ 다른 대상을 설정하여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을 취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였다.
- ⑤ 비유적인 표현으로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 개인 긴 강둑엔 풀빛이 짙었는데
 (雨歇長堤草色多)
 남포에서 그대 보내니 슬픈 노래 울리네.
 (送君南浦動悲歌)
 대동강 물은 그 언제나 다할런가
 (大同江水何時盡)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결에 더하거니.
 (別淚年年添綠波)
 - 정시상의 「송인(送人)」

(나)
 靑山(청산)은 내 뜻이오 綠水(녹수)는 님의 精(정)이
 綠水 흘러간들 靑山이야 變(변)할 손가.
 綠水도 靑山을 못 니져 우러 예어 가노고.
 - 황진이의 시조

(다)
 건곤(乾坤)이 폐식(閉塞)하야 백설(白雪)이 흠비친 제, 사름은
 ㄱ니와 놀새도 ㄱ쳐 있다. 쇼상 남반(瀟湘南畔)¹⁾ 도 치오미
 이러커든, 옥누(玉樓)²⁾ 고쳐(高處)야 더욱 닐너 므슴허리, 양
 춘(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디 쏘이고져, 모침(茅簷)³⁾ 비친
 히를 옥누의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니미고 취슈(翠袖)⁴⁾를 반
 만 거더. 일모(日暮) 슈둑(脩竹)⁵⁾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다른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청등(靑燈) 거른 것터 던공
 후⁶⁾ 노하 두고, 꿈이나 님을 보려 턱뵈고 비겨시니, 양금(養
 禽)도 초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썰고.
 하르도 열두 쟈 흥 돌도 설흔 날, 저근뵈 싱각 마라 이 시름
 닛샤 흥니, 므움의 미쳐 이셔 골슈(骨髓)의 썰터시니, 편작(編
 鵠)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었디 허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
 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빅 되오리라. ㄱ나모 가지
 마다 간 디 ㄱ궂궂 안니다가, 향므든 놀애로 님의 오시 올므리

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초려 ㅎ노라.

- 정철의 「사미인곡(思美人曲)」에서

[어휘풀이] 1) 쇼상 남반(瀟湘南畔) : 소상강 남쪽 2) 옥누(玉樓) : 옥황상제가 있는 곳 3) 모첨(茅簷) : 초가집 처마 4) 취슈(翠袖) : 푸른 소매 5) 슈독(脩竹) : 긴 대나무 6) 던공후 : 자개 장식을 한 공후

7. (가) ~ (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의 태도를 원망하고 있다.
- ② 임을 보내면서 부른 노래이다.
- ③ 이별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 ④ 이별의 상황을 공간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사랑의 속절없음에 대한 한탄이 주된 정서이다.

8. (가)의 결구(結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기구(起句)의 '풀빛'과 시각적으로 어울린다.
- ② 과장된 표현으로 이별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전구(轉句)의 '언제나 다할런가'와 의미가 호응한다.
- ④ 이별의 정한(情恨)이 깊은 강물의 흐름과 어우러진다.
- ⑤ 해마다 더해 가는 현실에 대한 무상감이 푸른 물결과 대응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북한산(北漢山)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白雲臺)나 인수봉(仁壽峰)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왼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왼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달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나)흰 구름 푸른 나는 골골이 잠겼는디
추상(秋霜)에 물든 ㉡ 단풍(丹楓) 봄꽃도곤 더 쇼해라
천공(天公)이 날을 위후야미 빛출 품여 니도다.

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비의 방법으로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며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 ③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바뀌고 있다.
- ⑤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시

가

10.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다려야만 한다.'를 반복하여 고고한 삶에 대한 지향을 강조하고 있군.
- ② 산봉우리에 살짝 쌓인 눈의 모습을 '열은 화장'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군.
- ③ '차가운 수목'은 화자가 바라는 겨울 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그려 낸 것이군.
- ④ '장밋빛 햇살'은 북한산의 고고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군.
- ⑤ '고고한 높이'는 세속으로부터 벗어난 초연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청산아 웃지 마라. 백운아 조롱 마라
㉠ 백발 흥진에 내 즐겨 다니더냐
성은이 지중하시니 ㉡ 갑고 가려 하노라

11. 이 시조에서 지은이가 유교적 사회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말을 찾아 2음 절로 쓰라.

12. 이 시조의 사상적 배경은?

- ① 도교 ② 유교 ③ 불교 ④ 기독교 ⑤ 무속 신앙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낙시 드리우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無心)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라.

(나) 말 업슨 청산(靑山)이오 태(態) 업슨 유수(流水)로다
갑 업슨 청풍(淸風)이오 님즈 업슨 명월(明月)이로다
이 중에 병(病) 업슨 이 몸이 분별(分別) 업시 늘그리라.

(다) 대초 불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뜻드르며,
벼 빈 그르헤 계는 어이 느리노고.
술 닉자 체 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13. (가)~(다)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 개)

- ① (가)의 '낙시'는 실제 고기를 잡으려는 행위는 아니야.
- ② (가)의 '물결'은 욕심이 없는 화자를 형상화한 것이다.
- ③ (나)의 '청산'과 '유수'는 세속적인 공간과는 거리가 있어.
- ④ (나)의 '병'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의 병이군.
- ⑤ (다)의 '술'은 풍요로움과 함께 화자의 흥취를 환기하는군.

14. (나)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할 때 적절한 것은? (두 개)

———— <보 기> ————
공산이 적막한데 접동새 슬피 울고
산화는 난만한데 별나비 쌀쌀하다.
청산을 흰 구름은 부용같이 피어가서
선인을 찾아와서 곳곳이 따라오고
현포의 맑은 안개 띠같이 둘러 있어
신선은 날만 여겨 곳곳이 쫓아온다.

- 작자 미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 ① (나)와 <보기> 모두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였다.
- ② (나)와 <보기> 모두 삶에 대한 달관이 드러나 있다.
- ③ (나)와 달리 <보기>는 세속적인 삶과 거리를 두고 있다.
- ④ (나)와 <보기>에는 모두 화자의 자연에 대한 삶의 방식이 나타나 있다.
- ⑤ (나)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 <보기>는 유사한 종결 어미를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구준비 개단 말가 흐리던 구름 걸단 말가
압내희 기픈 소히 다 몯았다 흥노손나
진실로 몯디온 몯아시면 갇긴 시서 오리라

15. 이 노래의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적 화자는 지금 현재 유배 상태에 있다.
- ② 시적 화자는 임금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 ③ 시적 화자는 벼슬자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 ④ 시적 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⑤ 시적 화자는 자신의 정직한 신념에 따르려는 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16. 시적 화자의 정서를 작품 전체의 내용을 고려하여 유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과 이별한 슬픔이 보인다.
- ②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돋보인다.
- ③ 후회와 반성의 자세가 드러나고 있다.
- ④ 도도하고 거만한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⑤ 강직하고 당당한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저 장스야, 네 황후 그 무서시라 워는다. 사자.
外骨內肉(외골내육), 兩目(양목)이 上天(상천), 前行後行
(전행후행) 小(소)아리 八足(팔족), 大(대)아리 二足(이족),
靑醬(청장) 으스스하는 동난지이 사오.
장스야, 하 거복이 웨지 말고 게젯이라 허렴은.

[나]
불 아니 땀지라도 절로 익는 솔과
여물죽 아니 먹여도 크고 살져 잘 걷는 말과, ㉠ 길쌈 잘
하는 기생첩과, 술이 샘솟는 주전화, ㉡ 앞부로 낮는 검은 암소,
평생 이 다섯 가지 둘 양이면 부러울 것이 없어라.

[다]
식어마님 며느라기 낮바 벽 바을 구루지 마오.
빛에 바든 며느린가 갑세 쳐 온 며느린가. 밤나모 석은
등걸에 휘초리나니긋치 ㉢ 앞살피신 식아버님, 벗 뵤싹긋
치 되종고신 식어마님, 三年(삼 년) ㉣ 거론 망태에 새 송
곳부리긋치 쏘족하신 식누의님. 唐(당)피 가론 밧티 돌피
나니긋치 시노란 윗곳 긋튼 피똥 누는 아들 허나 두고,
㉤ 건 밧티 매곳 긋튼 며느리를 어디를 낮바 허시논고.

[라]
窓(창) 내고자 窓(창)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窓(창)을 내
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들져귀 수들져귀 비
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득닥 바가 내 가슴에 窓(창) 내
고자.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허노라.

[마]
님 글인 相思夢(상사몽)이 沔笠(실솔)이 녀시되야
秋夜長(추야장) 깊은 밤에 님의 房(방)에 드렸다가
날 낮고 깊히 든 잠을 씨와 불가 허노라.

17. (가)-(라)와 같은 갈래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풍자·골계·해학과 같은 서민적 미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 ② 하층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현실적, 구체적인 것을 소재로 하고 있다.
- ③ 서민들의 진솔한 삶이 잘 드러나 있다.
- ④ 대부분 작가와 창작 연대를 알 수 없다.
- ⑤ 압축되고 절제된 시 형식을 추구하고 있다.

18.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가) : 제재가 ‘동난지이’이며, 돈호법, 열거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② (나) : 열거의 형태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다) : 농촌의 대가족 제도에서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한탄하는 며느리의 노래이다.
- ④ (라) : 현실에 순응하여 살고자 하는 체념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 ⑤ (마) : 임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심정을 귀뚜라미에 의탁하여 노래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름소나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1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니
조만간 세사(世事)를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3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4수>

바람은 절로 맑고 달은 절로 밝다
죽정송함(竹庭松檻)*에 ㉡ 티끌 한 점도 없으니
거문고 하나 만권의 서책이 더욱 산뜻하고 깨끗하구나
<11수>

제월(霽月)*이 구름 뚫고 슬 끝에 날아 올라
 십분(十分) 청광(淸光)이 푸른 시내 가운데에 비쬐거늘
 어디 있는 무리 잃은 갈매기는 나를 조차 오느냐
 <12수>

강가에 누워서 강물을 보는 뜻은
 세월이 빨리 가니 백세(百歲)인들 얼마 동안이라
 십 년 전 진세일념(塵世一念)*이 얼음 녹듯 한다
 <19수>

* 죽정송함(竹庭松檻): 대나무가 서 있는 뜰에 소나무로 만든 난간.

* 제월(霽月): 비가 갠 후 뜬 달.

* 진세일념(塵世一念): 속세에 대한 마음.

19. 윗글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계절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대구 형식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0.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동경하는 대상이며, ㉡은 화자가 시기하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가 추구하려는 대상이며, ㉡은 화자가 떨쳐 버리려는 대상이다.
- ③ ㉠은 화자의 삶이 투영된 대상이며, ㉡은 화자의 감흥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가 외면하고자 하는 대상이며, ㉡은 화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이며, ㉡은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대상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도 다 새거다 호의 메고 가자스라.
 내 논 다 밷어든 네 논 점 밷어 주마.
 올 길헤 썩 빠다가 누에 머겨 보자스라.
 - 정철, <훈민가(訓民歌)>

[나]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옹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 정약용, <보리 타작>

[다]
 좌수(左手)의 잡은 춘광(春光) 우수(右手)로 옮겨
 낫어
 농부가 흥을 계워 수답(水畓)의 이종(移種)하니 *
 아마도 성세 낙민(聖世樂民)은 이뿐인가

초운(初耘) 재운(再耘) 풀 밀 적의 저 농부 수고
 한다
 스립 [도롱이-비웃와 샷갓] 쓰고 호미 들고 상평(上坪)
 하평(下坪) 분주하다
 아마도 실시(失時)하면 * 일 년 싱익 허사(虛事)
 인가

근고(勤苦)하여 * 심은 오곡(五穀) 날 가물어 근
 심터니
 유연 작운(油然作雲) * 오신 비의 피는 이삭 거
 록하다
 아마도 우순풍조(雨順風調) * 성화(聖化) * 신가

백로(白露) 상강(霜降) 다닷거든 낫 가러 손의 들
 고
 지게 지고 가서 보니 백곡(百穀)이 다 익었다
 지금의 실시(失時)헌 농부야 일어 무삼

일 년을 수고하여 백곡이 풍등(豊登)하니 *
우순풍조(雨順風調) 아니런들 함포고복(含哺鼓腹)
어이허리

아마도 국태평(國太平) 민안락(民安樂)은 금세(今世)
신가

그되 추수(秋收) 얼마 험고 님 농수 지은 거슨
토세(土稅) 신역(身役) 밧친 후의 몇 섬이나 남을
는지

아마도 다 하고 나면 겨울나기 어려

- 이세보, <농부가(農夫歌)>

21. [가]~[다]에 공통되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은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서민들의 삶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 ③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 ④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계몽하고 있다.
- ⑤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개인적 정감을 표출하고 있다.

22. [가]와 창작 의도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대초 불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뿔뜨르며
벼 뵈 그르헤 게는 어이 나리난고.
술 닉자 체 장사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 황희
- ② 십 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 내니
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淸風) 한 간 맡겨 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 두고 보리라.
- 송순
- ③ 청산은 엇지하야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엇지하야 주야에 굿지 아니는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
- 이황, <도산십이곡>
- ④ 어리고 성근 매화 너를 밋지 아녜더니
눈 기약(期約)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엿고나.
촉(燭) 잡고 가까이 사랑할 제 암향조차 부동(浮動)
하더라.
- 안민영, <매화사>
- ⑤ 비 오는 데 들에 가랴 사립 닫고 소 머겨라.
장마가 매양이라 쟁기 연장 다스려라.
쉬다가 개는 날 보아 사래 긴 발 갈아라.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无等山(무등산) 험 활기 뵈히 동다히로 버더 이셔
멀리 세쳐 와 霽月峯(제월봉)의 되여거늘
無邊大野(무변대야)의 모습 짐작 호노라
일곱 구빅 흙디 움쳐 므득므득 버렸는 듯.

가운데 구빅논 ㉠굽곡 든 늘근 농이
선즙을 굿 썩야 머리를 언쳐시니

(나)

너르바회 우히 松竹(송죽)을 해혀고
亭子(정자)를 언쳐시니 ㉢구름 툰 靑鶴(청학)이
千里(천 리)를 가리라 두 노래 버렸는 듯.

(다)

玉泉山(옥천산) 龍泉山(용천산) 느린 물이
亭子(정자) 압 너븐 들히 ㉣울울히 퍼진 드시
넙써든 기노라 프르거든 희디 마나
㉤雙龍(쌍룡)이 뒤트는 듯 ㉦㉧긴 길을 쳐 뿔는 듯

어드러로 가노라 모습 일 비얏바
돋는 듯 색로는 듯 밤늦즈로 흐르는 듯

(라)

㉨므소친 沙汀(사정)은 눈긋치 퍼졌거든
어즈러온 ㉩기력기논 므스거슬 어르노라
안즈락 누리락 모드락 훗트락
蘆花(노화)를 스이 두고 우러곰 좃니는뇨.

(마)

너븐 길 밧기요 긴 하늘 아리
㉪두르고 쏘진 거슨 뵈힌가 屏風(병풍)인가 그림가 아닌가.

노픈 듯 느즌 듯 근는 듯 닛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즈러온 가운데 ㉬일흙논 양호야 하늘도 짓티 아녀>
웃독이 섰는 거시 秋月山(추월산) ㉭머리 짓고

龍龜山(용구산) 夢仙山(몽선산) 佛臺山(불대산) 魚登山(어등산)

湧珍山(용진산) 錦城山(금성산)이 虛空(허공)에 버러거든
遠近(원근) 蒼崖(창애)의 머문 것도 하도 할샤.

23.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도교적인 삶의 태도로 태평 성대를 염원하고 있다.
- ② 현실의 근심을 술로 이겨내며 신선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다.
- ③ 층의 사상을 바탕으로 자연을 즐기는 풍류 생활을 노래하고 있다.
- ④ 속세의 삶과 자연에서의 삶을 대비시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의 경치를 즐긴 후에, 속세로 들어와 술을 마시

며 그 즐거움을 이어가고 있다.

24.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② 소재를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시각적인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 ④ 선정에 대한 포부를 함축하고 있다.
- ⑤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펼쳐지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도 봄산에서는
나를 버릴 수 있으리.
「솔이파리들이 가만히 이 세상에 내리고
[A] 상수리나무 묵은 잎은 저만큼 지네.
「봄이 오는 이 숲에서는
지난날들을 가만히 내려놓아도 좋으리.
그러면 지나온 날들처럼
[B] 남은 생도 벅차리
「봄이 오는 이 숲에서
무엇을 내 손에 쥐고
무엇을 내 마음 가장자리에 잡아두리.
「솔숲 끝으로 해맑은 햇살이 찾아오고
[C] 박새들은 솔가지에서 솔가지로 가벼이 내리네.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돌아와 거니는 숲이여, 거
기 이는 바람이여.
[D] 찬 서리 내린 실가지 끝에서
눈뜨리
「눈을 뜨리.
그대는 저 수많은 새 잎사귀들처럼 ㉠푸르른 눈을 뜨리.
그대 생의 이 고요한 숲에서.
— 김용택, 「그대 생의 숲에서」

[나]
길을 걷는데
햇빛이 이마를 툭 건드린다.
봄이야
그 말을 하나 하려고
멀고 먼 길을 달려온 빛 하나가
내 이마를 건드리며 떨어진 것이다.
나무 한 잎 피우려고
잠든 꽃잎의 눈꺼풀 깨우려고
지상에 내려오는 햇빛들
나에게 사명을 다하며 떨어진 햇빛을 보다가
문득 나는 이 세상의 모든 햇빛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강물에게 나뭇잎에게 세상의 모든 플라크톤들에게

말을 걸며 내려온다는 것을 알았다.
반짝이며 날아가는 물방울들
초록으로 빨강으로 답하는 풀잎들 꽃들
눈부심으로 가득 차 서로 통하고 있었다.
봄이야
라고 말하며 떨어지는 햇빛에 귀를 귀울여 본다.
그의 소리를 듣고 ㉡푸른 귀 하나가
땅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 권대웅, 「햇빛이 말을 걸다」

[다]
봄옷을 새로 입고 영귀대1)에 올라오니
고금에 없는 여경2)에 맑은 흥이 절로 나니
풍호영이귀3)를 오늘 다시 본 듯하다.
대(臺) 아래 연당4)에 가는 비 잠깐 지나가니
벽옥 같은 넓은 잎에 흠뻑 젖는 게 구슬이로다.
이러한 맑은 경치를 봄 직도 하다마는
염계5) 가신 후에 몇몇 해가 지난 것이오.
의구한 청향(清香)이 다만 혼자 남았구나.
자색 연기가 비낀 아래 폭포를 멀리 보니
단애 높은 끝에 긴 내가 걸려 있는 듯
향로봉이 그 어디냐 여산이 여기로구나.
징심대 굽어보니 더럽던 마음이 새로운 듯하다마는
적막한 빈 대(臺)에 외로이 앉았으니
거울 같은 물에 산영만 잠겨 있고
녹음이 우거진 데 온갖 새가 슬피 운다.
배회사역6)하며 진적(眞蹟)7)을 다 찾으니
탁영대 고인 물은 고금 없이 맑다마는
말세의 홍진8)에 사람마다 다투거든
이리 좋은 맑은 못에 갓끈을 씻은 줄 누가 알리.
— 박인로, 「독락당」

[어휘 풀이] 1) 영귀대, 징심대, 탁영대 : 경주 옥산에 있는 대의 이름. '대(臺)'란 주변보다 높고 평평한 곳. 2)여경(麗景) : 아름다운 경치 3) 풍호영이귀 : 바람을 쐬고 노래를 읊조리며 돌아옴.(아름다운 자연을 즐기. 논어에 나옴. 4) 연당(蓮塘) : 연못 5) 염계 : 송나라 때 사람 주돈이의 호 7)배회사역(徘徊思憶) : 거닐면서 생각함. 8) 진적 : 실제의 유적(자취) 9) 홍진 : 속세

25.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속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화자의 긍지가 드러나 있다.
 - ②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순박한 삶이 나타나 있다.
 - ③ 봄을 맞아 새롭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④ 계절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⑤ 자연에 감동하고 그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26. <보기>의 []에 넣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에는 모두 화자의 깨달음이 들어 있다. 화자의 깨달음은 모두 자연 현상을 접하면서 얻은 것이다. 그러나 자연 현상을 통해 깨달은 내용은 서로 다르다. (가)의 화자가 깨달은 바가 주로 [㉠]와/과 관련된 것이라면 (나)의 화자가 깨달은 것은 [㉡]와/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 |
|-------------|------------|
| ㉠ | ㉡ |
| ① 새로운 삶의 자세 | 자연 현상의 의미 |
| ② 화자 자신의 본질 | 자연 현상의 이치 |
| ③ 인간 존재의 본성 | 자연 현상의 본질 |
| ④ 올바른 삶의 방식 | 자연과 인간의 관계 |
| ⑤ 인간 사회의 모습 | 자연이 내리는 혜택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 당풍(壯風)의 돛줄 드라 육선(六船)이 흙의 썰나, 삼현(三絃)과 군악 소리 산해(山海)를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魚龍)들이 응당이 놀라도다.

[A] 히구(海口)를 얼핏 나서 오륙도(五六島) 뒤지우고, 고국을 도라보니 야식(夜色)이 창망(蒼茫)하야, 아모것도 아니 되고, 연희(沿海) 변진(邊津) 각 포(浦)의 불빛 두어 덩이 구름 빛기 별 만하니.

비방의 누어 이셔 내 신세(身勢)를 심각하니,

[B] 꺾독이 심난(心亂)헌디 대풍(大風)이 내려나서 태산(泰山) 꺾툰 성낸 물결 텨디(天地)의 조옥하니, 큰나큰 만곡주(萬斛舟)가 나모닙 브치이듯, 하늘의 올났다가 디함(地陷)의 느려지니,

[B] 열두 발 뽕뚝대는 차아(杈枒)쳐로 구버 잇고, 선두 복 초석(草席) 돛촌 반돌쳐로 비블러니, 굵은 우레 존 별악은 등 아래서 진동하고,

[B] ㉠ 성낸 고래 동(動)헌 농(龍)은 물 속의셔 희롱하니,

[B] 방 속의 요강 타구(唾具) 잣바지고 업더지고, 상하 좌우 비방 널은 낱낱히 우는구나.

㉠ 이윽고 히 돛거늘 ㉡ 장관(壯觀)을 하여 보시. 내려나 비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스면을 바라보니 어와 장홀시고, 인심 텨디간(天地間)의 이런 구경 쏘 어디 이실고,

㉢ 구만 니 우뚝 속의 큰 물결분이로신 등 뒤흐로 도라보니 동늬(東萊) 뫼이 눈섭 꺾고, 동남을 도라보니 바다히 ㉣이 업서, 우아리 프른 빛치 하늘 빛기 다하 있다.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딴로 가는작고. 흙기 썰는 다솟 비는 간 티를 모롤로다. 스면(四面)을 두로 보니 잇다감 물결 속의 부체만 자근 듯치 들낙날낙 흐논고나. <중략>

[중략]

이십 리 실상사(實相寺)가 삼사상(三使相)할 때 나는 내리잡고, 왜성(倭城)으로 바로 가니, “인민(人民)이 부러(富麗)하기 대판(大阪)만은 못하여도 서(西)에서 동(東)에 가기 삼십 리라.” 하는 구나. 관사(館舍)는 본룡사(本龍寺)요, 오층(五層) 문루(門樓) 위에 열 아문 구리 기둥 운소(雲霄)에 달았구나. 수석(水石)도 기절(奇絶)하고, 죽수(竹樹)도 유취(幽趣)있네. 왜황(倭皇)이 사는 데라 사치가 측량없다. 산형(山形)이 웅장하고, 수세(水勢)도 환포(環抱)하여 옥야천리(沃野千里) 생겼으니, 아깝고 애달음손 이리 좋은 천부 금탕(天府金湯) 왜놈의 기물(器物)되어 칭제 칭왕(稱帝稱王)하며, 전자 전손(傳子傳孫)하니, ㉣ 개돌 같은 비린 유(類)를 다 모두 소탕하고, 사천 리 육십 주를 조선 땅 만들어서 왕화(王化)에 목욕 감겨 예의국 만들굽다.

27. 이와 같은 갈래의 글을 지을 때 유의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스럽고 솔직하게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야 한다.
- ② 전문적인 식견(識見)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해야 한다.
- ③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질을 진지하게 탐구해야 한다.
- ④ 참신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서술해야 한다.
- ⑤ 새로운 세계를 접한 감흥(感興)과 그에 대한 인상을 서술해야 한다.

28. 이 시를 조선 전기의 가사와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장편화된 특징이 있다.
- ② 산문 정신이 가미되었다.
- ③ 현실 속에서 소재를 취하였다.
- ④ 형식상의 제약을 더욱 엄격히 지켰다.
- ⑤ 구체적인 견문과 여정이 담긴 기행문의 성격을 띤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산악 같은 높은 물결 배머리를 둘러치네. 크나큰 배 조리 젓듯 오장육부 다 나온다. 천은 입어 남은 목숨 마자 진케 되겠구나. 초한건곤 한 영중에 장군기신 되려니와 서풍낙일 먹라수에 굴삼려는 불원이라. 차역천명 할일 없다. 일생일사 어찌하니 출몰사생 삼주야에 노 지우고 닳을 지니 수로 천리 다 지내어 추자섬이 여기로다. 도중으로 들어가니 적막하기 태심이라. 사면으로 돌아보니 날 알 이 뉘 있으리. 보이니 바다이요 들리니 물소리라. 벽해상전 갈린 후에 모래 모여섬이 되니 추자섬 생길 제는 천작지옥이로다. 해수로성을 싸고 운산으로 문을 지어 세상이 끊쳤으니 인간은 아니로다. 풍도섬이 어디메뇨 지옥이 여기로다.

어디로 가잔 말고 뉘집으로 가잔말고 눈물이 가리우니 걸음마다 었더진다. 이 집에가 의지하자 가난하다 핍게하고 저 집에가 의지하자 연고 있다 칭탈하네. 이 집 저집 아모덴들 적객주인 뉘 좋다고 관력으로 핍박하고 세부득이 말았으니 관차 더러 못한 말을 만만할손 내가 듣네. 세간 그릇 흘던지며 역정내어 하는 말이 저 나그네 헤어보소 주인 아니 불상한가. 이집 저집 잘사는 집 한두 집이 아니어든 관인네는 인정 받고 손님네는 흑언들어 구태어 내 집으로 연분있어 와 계신가. 내 살이 담박한 줄 보시다야 아니 알가. 앞뒤에 전답 없고 물 속으로 생애하여 앞 언덕에 고기 낚아 웃녘에 장사가니 삼망 얻어 보리섬이 믿을 것도 아니로세.

신경처자 세 식구의 ㉠ 호구하기 어렵거든 양식없는 나그네는 무엇 먹고 살려는고. 집이라고 서 불손가 기어 들고 기어나며 방 한 간에 주인들고 나그네는 잘 데 없네. 뛰자리 한 앞 주어 침하게 거처하니 냉지에 누습하고 즈생도 하도할사. 발남은 구렁배암 뺨남은 청진의라 좌우로 돌렸으니 무섭고도 증그럽다. 서산에 일락하고 그름밤 어두운데 남북촌 두세집에 솔불이 흐미하다. 어디서 슬픈 소리 내 근심 더하는고 별표에 배 떠나니 노젓는 소리로다.

눈물로 밤을 새와 아침에 조반드니 덜 쓰른 보리밥에 무장땡이 한 종자라. 한 술 떠서 보고 큰 덩이 내어놓

고 그도 저도 아조 없어 굶을 적이 간간이라. 여름날 긴긴 날에 배고파 어려웨라.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방염천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땀이 올라 굴뚝 막은 덕석인가. 덥고 검기 다바리고 내암새를 어이하리. 어와 내 일이야 가련히도 되었고나.

29. ㉠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

- ① 일생(一生)
- ② 생활(生活)
- ③ 생계(生計)
- ④ 연로(年老)
- ⑤ 생명(生命)

30.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

- ① 일상 생활의 언어를 구사하여 생동감과 현실감을 획득하고 있다.
- ② 안빈낙도하는 이상적인 삶과 궁핍한 현실적 갈등을 잘 나타내고 있다.
- ③ 음풍농월하는 양반의 생활상을 한문투의 문장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④ 정교한 시어 구사가 돋보인다.
- ⑤ 평민 의식이 반영되어 현실 비판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간이별 만사중에 ㉡ 독수공발 더욱 싫다. 임 못 보아 그리운 이내 심정을 누가 알리. 맏힌시름 허튼 근심 다 후리쳐 던져두고 ㉢ 자나깨나 깨나자나 임 못 보니 가슴 답답 어린 양자 고은 소리 눈에 암암 귀에 쟁쟁 보고지고 임의 얼굴 듣고지고 임의 소리 비나이다 하느님께 임 생기라 비나이다 전생차생 무슨죄로 우리 둘이 생겨나서 잊지말자 처음 맹세 죽지말자 백년기약 천금같이 믿었는데 세상일에 마가 많다 근원흘러 ㉣ 물이 되어 깊고 깊고 다시 깊고 사랑모여 ㉤ 뫼가 되어 높고 높고 다시 높아 무너질줄 모르거든 끊어질줄 제 뉘알리 조물이 샘을 내는지 귀신이 장난질하는지 일조낭군 이별후에 소식조차 돈절하니 오늘올까 내일올까 그린지도 오래거라 무정한 세월이 절로가니 옥안은발 공로로다 ㉥ 오동(梧桐) 야우(夜雨) 성긴 비에 밤은 어이 더디 가

고

㉔ 녹양방초(綠楊芳草) 저문 날에 해는 어이 수이 가노
 이내 상사(相思) 아르시면 임도 나를 그리리다
 적적(寂寂)심야(深夜) 혼자 앉아 다만 한숨 내 벗이라
 일촌(一寸) 간장(肝腸) 구비 썩어 피어나니 가슴 답답
 우는 눈물 받아 내면 배도 타고 아니 가라
 피는 불이 일어나면 임의 옷에 당기리라
 사랑 계워 우던 울음 생각하니 목이 메고
 교태 계워 웃던 웃음 헤아리니 더욱 싫다
 지척(咫尺) 동서(東西) 천 리 되야 바라보니 눈물이고
 [A]

날개 돋힌 학이 되야 날아가다 아니 가라
 산은 첩첩하여 ㉕ 고개되고 물은 흘러 ㉖ 소(沼)가 된다.

인간이별 만사중에 나 같은이 또 있을까
 ㉗ 바람불어 구름되어 구름끼어 저문날에
 나며들며 ㉘ 빈 방으로 오락가락 혼자 있어
 임 계신데 바라보니 이내 상사 허사로다
 공방미인 독상사가 예로부터 이러한가
 나 혼자 이러한가 남도 아니 이러한가
 노류장화 꺾어쥐고 춘색으로 다니는가
 날 사랑 하던 끝에 남을 사랑 하시는가
 ㉙ 산계야목 길을 들어 돌아올줄 모르는가
 ㉚ 노류장화 꺾어쥐고 춘색으로 다니는가
 날 사랑 하던 끝에 남을 사랑 하시는가
 가는 길 자취없어 오는 길이 무디거다
 한번 죽어 돌아가면 다시 보기 어려우니

31. 이 시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물을 이용한 정서의 표현
- ② 반어적 표현을 통한 대상의 풍자
- ③ 여성적 어조를 통한 분위기 환기
- ④ 어휘의 반복을 통한 의미의 심화
- ⑤ 4음보의 연속에 의한 운율감 형성

32. ㉗, ㉘과 ㉕, ㉖의 의미를 구분하여 쓰시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 가마 타는 즐거움은 알아도
 가마 메는 괴로움은 모르고 있네.
 가마 메고 험한 산길 오를 때면,
 빠르기가 산 타는 노루와 같고
 가마 메고 비탈길 내려올 때면,

우리로 돌아가는 염소처럼 재빠르네.
 가마 메고 깊은 골짜기 건너갈 때면,
 다람쥐도 덩달아 같이 춤추네.
 바위 옆을 지날 때에는 어깨 낮추고,
 오솔길 지날 때에는 종종걸음 걸어가네.
 검푸른 저수지 절벽에서 내려다볼 때는,
 놀라서 혼이 나가 아찔하기만 하네.
 평지를 밟듯이 날쌔게 달려
 귀에서 바람 소리 뽕뽕 난다네.
 이 산에 유람하는 까닭인즉슨
 이 즐거움 맨 먼저 손꼽기 때문
 근근히 관첩을 얻어만 와도
 역속(役屬)들은 법대로 모셔야 하는데
 하물며 말타고 행차하는 ㉗ 한림(翰林)에게
 누가 감히 못 하겠다 거절하리오.
 고을 아전은 채찍 들고 감독을 맡고,
 수승은 격식 차려 맞을 준비하네.
 높은 분 영접에 기한을 어길쏘냐,
 엄숙한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네.
 ㉘ 가마꾼 숨소리 폭포 소리에 뒤섞이고
 해진 옷에 땀이 베어 속속들이 젖어 가네
 외진 모퉁이 지날 때 옆엿놈 뒤쳐지고,
 험한 곳 오를 때엔 앞엿놈 허리 숙여야 하네.
 밧줄에 놀리어 어깨에 자국 나고,
 돌에 채여 부르튼 발 미쳐 낫지 못하네.
 자기는 병들면서 남을 편케 해 주니,
 하는 일 당나귀와 다를 바 하나 없네.
 너나 나나 본래는 똑같은 동포이고,
 한 하늘 부모삼아 다 같이 생겼는데,
 너희들 어리석어 이런 천대 감수하니,
 내 어찌 부끄럽고 안타깝지 않을쏘냐.
 나의 덕이 너에게 미친 것 없었는데,
 내 어찌 너의 은혜 혼자 받으리.
 형이 아우를 사랑치 않으니,
 자애로운 어버이 노하지 않겠는가.
 중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요.
 ㉕ 저 산 밑의 백성들은 가련하고나.
 큰 깃대 앞세우고 쌍마(雙馬) 수레 타고 오니,
 촌마을 사람들 모조리 동원하네.
 닭처럼 개처럼 내몰고 부리면서,
 소리치고 꾸중하기 범보다 더 심하네.
 예로부터 가마 타는 자 지킬 계을 있었는데,
 지금은 이 계을 훔같이 버려졌네.
 발 갈다가 징발되면 호미 내던지고
 밥 먹다가 징발되면 먹던 음식 뱉어야 해.
 죄 없이 욕 먹고 꾸중 들으며,
 일만 번 죽어도 머리는 조아려야.

병들고 지쳐서 험한 고비 넘기면,
그 때야 비로소 포로 신세 면하지만,
사또는 일산(日傘)쓰고 호연(浩然)히 가 버릴 뿐,
한 마디 위로의 말 남기지 않네.
기진 맥진하여 논밭으로 돌아오면
지친 몸 신음 소리 실낱 같은 목숨이네.
이 가마 메는 그림 그려
임금님께 돌아가서 바치고 싶네.

33. 다음 중, 한시(漢詩)의 정형성과 관련 없는 것은?

- ① 시어의 사성(四聲)
- ② 각 구의 자수(字數)
- ③ 시적 이미지의 대조
- ④ 작품 전체의 구의 수
- ⑤ 정해진 구의 마지막 운자

34.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요를 한시로 옮긴 것이다.
- ② 상징적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③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 ④ 상황을 담담히 전달하고 있다.
- ⑤ ‘중’은 힘없는 농민의 분신이다.

정답 및 해설

1) <답> ③

고대 가요는 농경 생활과 관련된 제천 의식에서 행해진 원시 종합 예술에서 발생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 작품은 집단적 서사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 가요로 옮겨가는 시기의 작품이므로 현전 작품 모두가 집단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답> ③

이 노래에는 시적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3) <답> ⑤

이 노래는 죽지람을 추모하는 노래이다. 비록 죽지람은 죽었지만 살아 생전에 보였던 모습을 그리워하며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청춘에의 회한을 감정 이입으로 표현하고 있고, 아울러 죽지람을 만날 수 없음에 대한 탄식과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4) <답> ④

‘모죽지람가’의 ‘마음’은 낭을 그리워하는 시적 화자의 마음을 말하고, ‘찬기파랑가’에 나오는 ‘마음’은 바로 기파랑의 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적 화자는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구나.’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노래에 나오는 ‘마음’은 각각 다른 대상을 의미한다.

5) <답> ②

재회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와 같은 후렴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의 전통적인 이별의 정서를 다루고 있다. 또한 ‘구스리 ~그츠리잇가’는 ‘정석가’에도 나타난다. 이별의 슬픔을 다루고 있으며 그 이별의 장소가 대동강이라는 점에서 정지상의 한시 ‘송인(送人)’과 동일하다.

6) <답>④

과거 회상보다는 미래에 대한 다짐이 주를 이루고 있는 노래이다.

7) <답> ④

이별의 상황을 각각 (가)는 ‘대동강 물’, (나)는 ‘청산과 녹수’, (다)는 ‘쇼상 남반과 옥누 고쳐’라는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8) <답> ⑤

‘이별의 눈물이 더하기 때문에 대동강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과장된 표현으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의 무상함이 아니라 이별의 슬픔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 푸른 물결과 대응하고 있다.

가 김종길, 「고고」

해제 | 이 작품은 북한산의 고고한 높이를 통해 삶에서의 고고한 자세를 환기시키면서 북한산이 제 높이를 회복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신록이나 단풍, 혹은 적설, 또는 안개 낀 상황에서는 제 높이를 나타낼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한산에서 제일 높은 백운대나 인수봉과 다른 봉우리 혹은 골짜기들 사이에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즉 다른 존재들과 함께할 때 백운대나 인수봉은 그 존재값 혹은 진상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래서 오로지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고 ‘윈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이 되어야 그 존재값으로서 고고한 높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백운대와 인수봉이, 북한산이 그때를 기다려야 하듯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도 그런 기품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함을 아울러 환기하고 있다.

주제 | 고고한 삶의 자세 지향

구성 |

1연 : 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회복할 겨울까지 기다려야 함.

2연~3연 : 차가운 수목으로 젖게 되는 겨울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함.

4연~6연 : 고고한 높이를 회복할 겨울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함.

나 김천택, 「흰 구름 프른 닳는~」

해제 | 화자는 가을에 물든 단풍을 바라보며 봄에 피는 꽃보다 더 좋다고 말하면서 비교의 방법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주제 |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 예찬

구성 |

초장 : 하얀 구름의 가을 풍경

중장 : 가을 단풍과 봄꽃의 비교

종장 : 가을의 아름다움 예찬

9) <답> ①

(가)에서는 ‘신록이나 단풍, /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 눈이래도 윈 산을 뒤덮는 적설’과 ‘높은 봉우리만이 열은 화장을 하듯 / 가볍게 눈을 쓴 북한산의 모습을 대비하여 드러내고 있고, (나)에서는 ‘추상에 물든 단풍’과 ‘봄꽃’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

다.

10) <답> ④

‘장밋빛 햇살이 와 달기만 해도 변질하는,’이라고 했으므로 장밋빛 햇살은 고고함을 쉽게 사라지게 하는 존재로서 고고함이 쉽게 얻기 어려운 것임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① ‘기다려야만 한다.’가 1연, 3연, 6연에 반복적으로 제시되면 서 고고함을 얻기 위해 기다림을 감수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2연 4행에 제시된 ‘가볍게 눈을 쓰고’라는 표현을 통해 높은 봉우리에만 살짝 쌓인 눈의 모습을 ‘열은 화장’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시각적인 이미지가 연상되는 수목화를 통해 화자가 생각하는 겨울 산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고고’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일에 초연하여 홀로 고상하다.’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고한 높이’는 화자가 지향하는 초연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시구임을 짐작할 수 있다.

11) <답> 성은

12) <답> ②

13) <답> ②, ④

14) <답> ①, ④

15) ③

16) ⑤

17) <답> ⑤

사설시조에 대한 설명이다.

18) <답> ④

19) <답> ②

이 작품에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은 드러나 있으나, 계절의 변화는 찾아 볼 수 없다.

① <1수>의 ‘금수(禽獸)나 다름소냐’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한 의미의 강조를 찾아 볼 수 있다. ③ <11수>의 ‘바람은 절로 맑고 달은 절로 밝다’에서 대구 형식을 사용한 운율 형성을 찾아볼 수 있다. ④ <11수>의 ‘더욱 산뜻하고 깨끗하구나’에서 영탄적 어조를 통한 화자의 정서 부각을 찾아볼 수 있다. ⑤ <12수>의 ‘제월(霽月)이 구름 뚫고’, ‘청광(淸光)이 푸른 시내 가운데에 비껴

거늘’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 <답> ②

㉠은 화자가 좇으려 하는 대상임을 볼 때, ‘화자가 추구하려는 대상’, ㉡은 화자가 이것이 없을 때 산뜻하고 깨끗함을 느낀다는 내용을 볼 때, ‘화자가 떨쳐버리려는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① ㉡은 화자가 시기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화자가 시기하는 대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화자는 티끌이 없는 상황에서 산뜻하고 깨끗함을 느끼므로 ㉡이 ‘화자의 감흥을 유발하는 대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 화자가 좇으려 하는 대상이므로 ‘화자가 외면하고자 하는 대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화자는 티끌이 없는 상황을 즐기고 있으므로 ㉡이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대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가] 정철, <훈민가(訓民歌)>

• 주제 : 부지런히 농사 지을 것을 권유
• 해제 : 훈민가의 열셋째 수로 부지런히 농사 지을 것을 권유하며, 근면성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농번기에 농부는 들에 나가 김도 매야 하고, 뽕잎을 따다가 누에도 쳐야 하는데, 이러한 농사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것이다. 초장과 종장에서 드러나는 청유 어법은 농사를 권유하는 데 있어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나] 정약용, <보리 타작>

• 주제 : 보리 타작과 거기에서 드러나는 삶의 즐거운 모습
• 해제 : 이 시의 화자는 시의 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관직에 있었거나 혹은 관직에 있는 사대부이다. 그런 면에서 화자는 허구적 대리인이기는 하지만 작자 자신이라 해도 무방하다. 실학자인 정약용은 농업을 매우 중시하는 중농 정책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농사짓기를 중시하는 작자의 눈에 비친 당대 농민의 건강한 노동의 모습을 잘 보여 주는 보리 타작하는 모습을 소재로 한 이 작품은 작자의 이러한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다] 작자 미상, <농부가(農夫歌)>

• 주제 : 부지런히 농사 지을 것을 권유
• 해제 : 농업은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며 신농씨의 법과 순 임금의 유풍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부지런히 힘쓰라는 권농가(勸農歌)이다.

21) <답> ②

[가]에는 농민들에게 농사에 열중하라는 내용을, [나]에는 보리 타작하는 농민들의 건강한 삶의 모습을, [다]에는 농사일을 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가]~[다]는 모두 서민들의 삶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답> ⑤

[가]는 교훈적, 계몽적인 노래로 '근면과 상부상조'를 노래한 작품이다. 이것은 결국 권농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창작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은 윤선도의 '아우요'이다. 비가 올 때에는 직접 밭에 나가지 않더라도 소를 먹이고, 비가 그칠 때를 대비하여 연장을 갈무리하고, 개는 날 밭을 갈라고 권농하고 있다.

①은 농촌 생활의 흥겨움과 풍류, ②는 자연 친화, ③은 학문에의 정진, ④는 매화에 대한 예찬을 노래하고 있다.

23) <답> ④

속세로 돌아오지 않았다.

24) <답> ④

25) <답> ⑤

(가)의 '솔숲 끝으로 ~ 가벼이 내리네.'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화자의 감동이 드러나 있다. 또 (나)의 '반짝이며 ~ 있었다.'에도 이런 감동이 나타나 있으며, (다)의 '벽옥 같은 ~ 구슬이로다.'나 '향로봉이 ~ 그 어디냐.'등에도 자연에 감동하고 그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26) <답> ①

(가)의 화자는 봄산에 들어가서 묵은 잎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삶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 것을 다짐한다. 반면에 (나)의 화자는 햇빛이 찌는 것을 보면서 햇빛이 봄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것은 자연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화자가 깨달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7) <답> ⑤

기행문에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감흥이나 인상 그리고 견문 등을 서술해야 한다.

28) <답> ④

4·4조의 율격은 조선 전기와 후기 가사 모두의 공통적 특징이나 후기로 갈수록 변격 가사 등, 형식을 안 지키는 특성이 드러난다.

29) <답> ③

30) <답> ①

31) <답> ②

이 시가에는 풍자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32) <답> ㉠과 ㉡은 임에 대한 사랑이 깊어짐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과 ㉣은 임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소재이다.

33) ③

한시의 의미나 이미지의 짜임은 정형적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

34) ⑤